

호남고속철도 '송정~나주~고막원' 올해 착공

〈2단계 노선〉

이낙연 지사·박지원 의원·최경환 부총리 국회서 합의

의견차이 없는 구간부터...무안공항 경유 문제는 계속 논의

호남고속철도(KTX) 2단계 노선 가운데 광주 송정~나주~고막원역(함평) 구간이 올해 우선 착공된다. 전남도와 기획재정부 가 이견을 보이고 있는 무안국제공항 경유에 대해서는 계속 논의하기로 했다.

이낙연 전남지사는 15일 국회를 방문해 박지원의원(새정치민주연합·목포)과 함께 최경환 경제부총리를 만나 이같이 합의

했다. 이들 세 사람은 송정~목포 간 호남고속철도 2단계 노선 가운데 전남도, 국토교통부, 기획재정부 사이에 의견차이가 없는 광주 송정~나주~고막원역(함평) 구간은 올해 공사를 시작하기로 했다.

무안공항 경유 방식과 관련 이 지사와 박 의원은 "나후된 전남 서남부의 경제를 활성화시키기 위해서는 무안공항 활성화가 불가결하다"며 "박근혜 대통령의 공약

대로 2단계 노선이 무안공항을 경유해야 한다"고 최 부총리에게 요구했다.

이에 대해 최 부총리는 "무안공항을 경유하면 소요시간이 길어지는 등의 문제가 있다"며 "따라서 무안공항에는 별도의 노선을 깔고 2단계 노선은 나주~함평~목포로 하는 것이 좋겠다"고 말했다.

이들 세 사람은 이같은 의견차를 조정하기 위해 앞으로 계속 논의하자는 뜻을 모았다.

그러나 최 부총리의 입장이 '무안공항 지선 설치'라는 기존 기재부 안과 달라진 것이 없어 추후 변화 가능성은 미지수다.

이와 함께 이 지사는 남해안철도 목포~보성 구간의 공사를 올해 본격화하기 위해 추가경정 예산안에 500억원을 반영해 달라고 최 부총리에게 요청했다. 이에 대해 최 부총리는 "올해 공사를 할 수 있다면 추경반영을 적극 검토하겠다"고 답했다.

목포~보성 간 남해안철도 공사는 올해 예산에 52억원이 이미 반영돼 있으나, 전남도는 추경으로 예산을 증액해 공사를 조기에 본격화하려 하고 있다.

/*박지원기자 jkpark@kwangju.co.kr
/*윤현석기자 chadol@kwangju.co.kr



“광주시민 모두가 챔피언”

윤장현 시장 U대회 결산 회견...“광주 발전 동력으로 삼자”

“시민의 힘으로 해냈습니다. 광주는 지워지지 않는 전설이 됐습니다.”

윤장현 광주시장은 15일 광주시청 브리핑룸에서 2015광주하계유니버시아드 결산 기자회견을 갖고 “시민의 힘으로 광주 U대회의 성공적 개최를 이끌어 낸 광주가 자랑스럽다. 150만 시민 여러분이 진정한 챔피언”이라고 말했다.

윤 시장은 ‘광주가 별이 됐다. 지워지지 않는 전설이 됐다’는 클로드 루이 갈리앙 FISU(국제대학스포츠연맹) 회장의 발언을 언급하며 시민들에게 모든 영광을 돌려 드리겠다고 말했다. 윤 시장은 “이번 대회는 메르스의 어려움 속에서도 이를 완벽하게 극복한 무결점 대회로 치러내 국격(國格)을 높이고 시민의 자부심을 키운 대회였다”고 지평했다.

그는 “실의에 빠졌던 국민은 광주에서 새로운 희망을 찾았고 세계인들도 역동적인 대한민국의 진면목을 광주 U대회를 통해 알게됐다”고 말했다.

/*박지원기자 jkpark@kwangju.co.kr
/*윤현석기자 chadol@kwangju.co.kr

현한 점도 강조했다.

윤 시장은 “국제대회마다 반복했던 예산낭비에 대한 국민들의 걱정을 털어내고 저비용·고효율 대회의 롤모델을 새로 만들었다”고 자평했다. 실제 광주 U대회는 열세를 아끼기 위해 전체 70여개 경기장 중 3개를 제외한 나머지는 기존 시설을 활용했고, 선수촌은 37년 된 낡은 아파트를 재건축했으며 폐쇄회선 비용을 최소화 해 애초 계획보다 2000억원을 절약했다.

그는 “이번 광주 U대회를 통해 광주는 문화도시, 여행도시, 배려와 나눔의 열린도시라는 점을 보여줬다”고 평가했다.

윤 시장은 맺음말로 “앞으로 더 중요하다”고 밝혔다. 그는 “대회 성공 개최의 역량, 경험, 성과를 광주발전의 지속가능한 동력으로 삼아 ‘열린광주’로 도약하는 발판으로 삼겠다”면서 “시민과 함께라면 불가능한 일은 없다”라는 말로 회견을 마무리 했다.

/*채희종기자 chae@kwangju.co.kr
/*사진=나명주기자 mjna@

광주도 놀란 ‘문화 광주’의 힘...지역경제 활성화로 연계해야

U대회 성공 U그레이드 광주

(2) 문화자산 성장동력으로

세계가 극찬한 2015광주하계유니버시아드(광주 U대회) 성공 개최의 힘을 낚은 지역 경제를 업그레이드하는 동력으로 삼아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광주 U대회를 통해 국제적 경쟁력을 갖춘 김치 등 남도음식, 대인시장 등 경쟁력을 갖춘 전통시장, 소재원 등 고품격 문화관광 자원, 5·18국립묘지 등 민주화를 대표하는 인문 유산 등 광주만의 자산을 지역 경제 활성화와 연계해야 한다는 것이다.

15일 광주시와 광주 U대회 조직위원회 등에 따르면 전 세계 143개국 2979개 대학(대학원)생 등 1만2885명의 선수단이 참가한 이번 광주 U대회에선 문화도시 광주의 매력을 알리기 위한 문화 프로그램으로 팸투어, 김치축제, 청년축제 등이 진행됐다.

광주만의 문화를 담은 30여개의 행사는 지난 2일 전야제 2만여명을 시작으로 유니버시아드 파크 문화행사 2만6540명, 선수촌 문화행사 1만6605명 등 총 50여만명(연인원)이 참여한 정도로 ‘대박’을 터트렸다.

특히 광주~전남~전북을 연계해 12코스로 구성된 선수단 대상 팸투어는 연일 매진행렬을 기록하는 등 전 세계의 젊은이들에게 폭발적인 인기를 누렸다.

광주시는 선수단의 팸투어 참여가 폭발적으로 늘어나자 충장로·금남로·예술의

팸투어·청년축제 등 연일 ‘대박’

남도 자연·역사 통한다 자신감

거리를 둘러보는 야간코스과 5·18국립묘지, 시청전각, 소평체육 등 5개 코스를 긴급 확대하기도 했다. 이번 팸투어는 태풍에 따른 폭우 등 각종 악재에도 지난 13일 현재 80여개국 3338명이 참여했다.

팸투어를 경험한 세계 젊은이들의 만족도는 상상 이상이였다.

팸투어 프로그램을 진두지휘한 김인천 광주시 관광과장은 “남도의 관광지를 둘러보는 팸투어가 외국인에게 이렇게 호응을 얻어내는 몰랐다”며 “가는 곳마다 ‘뷰티풀 월드’을 외치는 외국 선수들을 보면서 가슴 뭉클했고, 남도의 자연과 역사가 세계인들에게 통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얻었다”고 말했다.

박안의 젊은이들은 도심 한가운데 자리 잡은 아시아문화전당과 대형 쇼핑몰 등에 매료됐고, 국립5·18묘지와 5·18기록관에서는 광주의 민주화를 향한 험난했던 여정을 듣고 웃음을 머미기도 했다.

쇠락한 전통시장을 되살린 대인야시장도 이들에게 신선한 볼거리 그 자체였다. 특히 시장 상인들의 하나를 사면 하나를 얹어주는 ‘덤 문화’ 등 남도의 정이 깃든 시장문화는 어머니의 파스함 그 자체였다. 이는 뉴질랜드 선수단인 벡윙퍼라(여씨)의 말이다.

이에 따라 광주와 전남·북을 연계한 호남권이 가진 유·무형의 문화·관광 자산을 지역경제 활성화와 연계해야한다는 의견에도 힘이 실리고 있다.

이와 관련, 윤장현 광주시장은 “U대회를 통해 확인된 남도문화의 경쟁력과 성숙한 선진 시민의식을 바탕으로 지역경제 활성화에 보탬이 되는 다양한 문화수익사업을 개발·육성토록 하겠다”고 밝혔다.

▶관련기사 2·3·20면

/*특별취재단=박진표기자 lucky@



“사랑해요 광주” ‘2015 광주하계유니버시아드’에 참가한 각국 선수단이 15일 광주 송정역에서 인천공항으로 가는 KTX에 탑승하기 위해 승강장으로 가던 중 손을 흔들어 인사하고 있다. /*특별취재단=김진수 기자 jeans@

박준영 전 전남지사 오늘 새정치 탈당 야권 신당 논의 불 지피나

박준영 전 전남도지사(사진)가 16일 국회 정론관에서 새정치민주연합 탈당 선언과 함께 신당 논의에 대한 입장을 밝힐 것으로 알려졌다. <관련기사 4면> 박 전 지사는 15일 광주일보와의 통화에서 “현재 신당 논의가 활발하게 이뤄지고 있지만, 대부분 현역 정치인들이라서 적극적인 입장을 밝히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안다”면서 “나의 결단이 신당 창당과 정권교체의 물꼬를 트는 계기로 작용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고 밝혔다.

박 전 지사는 “지지자들과 동반 탈당 형태가 아닌 홀로 탈당을 선언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박 전 지사는 “16일 기자회견 내용은 아직까지 확정되지 않았다”면서 “주변 지인들과 막판 논의를 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국민의 정부 청와대 수석과 국정홍보처장을 지낸 뒤 전남지사 3선을 거쳐 민주당 대선 후보 경선까지 나선 박 전 지사의 탈당은 신당 논의에 불을 지피고 가속화시키는 계기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임동욱기자 tuim@kwangju.co.kr

삼성물산 주주님들과 함께 이겨내겠습니다 마지막까지 지지와 격려를 부탁드립니다

삼성물산은 내일(7월 17일) 제일모직과의 합병을 위한 주주총회를 개최합니다

안타깝게도 엘리엇은 주주총회에서 합병을 무산시키려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주주님들의 지지와 격려 속에 반드시 이를 이겨낼 것입니다

주주님들의 주식 단 한 주라도 저희에게 위임해 주시면 큰 힘이 되겠습니다

대표전화로 연락주시면 저희들이 일일이 찾아뵙고 위임절차를 진행하겠습니다

삼성물산은 이번 합병을 통해 바이오 사업 등 새로운 성장동력을 확보하고 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한국의 대표기업으로서 기업가치와 주주이익을 극대화하는데 끝까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의결권 위임 관련 안내 www.newsamsungcnt.com/entrust.html

대표전화 02) 2145-2000

삼성물산주식회사